

기우제(祈雨祭)와 기청제(祈晴祭)

김 주 창

(kljckim@hanmail.net)

KCID 학술 및 기술교류분과 부위원장
한국농공학회 고문

“기청제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을 다루는 기술자, 교수, 일반인 등에게 물어보았다. 대부분이 “처음 듣는다”는 대답이었다. 물을 다루는 일로 70 평생을 살아온 나도 비가 많이 오는 금년 여름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우리 조상들의 깊은 생각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등으로 온 세계가 걱정하는 이 때에, 기우제와 기청제를 우리의 전통문화로 되살려 보존하고 세계적인 전통문화로 발전시키는 길은 없을까?”

금년은 참으로 비가 많이 오는 해로 곳곳에서 홍수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기상 이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비가 계속되면 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공상도 해보게 된다.

비의 피해를 따지는데 있어서도 단기간에 큰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제방이 유실되고 논밭이 침수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옥, 도로 등의 시설물에도 피해를 주고 엄청난 피해복구비를 들여야 원상복구가 가능해 진다. 한편 큰비는 아니어서 큰 홍수피해는 주지 않아도 오랫동안 비가 계속되면 인간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특히 농작물에 질병이 생기고 당도가 줄어들어 과일의 품질이 저하되고 일조시간의 감소로 곡식의 열매가 충실히 익지 못하는 피해를 가져온다. 그런데 눈에 띄이는 피해는 잘 알아도 질병이나 부실한 열매에 따른 손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홍수대책을 세워 이에 대응하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한해대책을 세워 지하수 등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물을 찾아내거나 물 절약 운동을 펼친다. 몇 십년 전만 하더라도 가뭄이 오면 하천 바닥에 도랑파기, 우물파기, 관정 굴착 등이 성행하였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홍수와 가뭄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조선왕조 실록이나 여러 역사서를 보면 우리 조상들도 가뭄대책과 홍수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인공적으로 댐을 만들어 놓고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장을 만들어 평상시에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고 기상예보를 통해 강우량을 예측해서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자연의 재해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그 시절에 맞는 방법을 적

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우제(祈雨祭)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드리는 제사이며, 중요한 가뭄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신령에게 구하는 것으로 몇 십년 전까지도 시행되었다.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타 들어 갈 때의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기우제를 드리는 것은 비록 비과학적이라 해도 농민을 위로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 드라마에서 본 조선왕조 태종의 기우제 드리는 광경은 잘 알려진 태종우(太宗雨)와 관련하여 더욱 인상적이었다. 즉, 태종이 나라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절망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세종에게 “가뭄이 심하니 내가 죽으면 상제에게 청하여 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뒤 이날이 되면 비가 내리고 가뭄을 면하게 되어, 태종의 기일인 음력 5월 10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東國歲時記, 5월조).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가뭄에 대해 제사만 지낸 것이 아니다. 벽골제처럼 저수지를 만들었고, 조선 시대에는 수많은 제언(堤堰)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저수지이며, 어느 정도 가뭄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기청제(祈晴祭)는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가 오랫동안 내리거나 큰 왕실 행사를 앞두고 비가 그치거나 오지않게 해달라고 드리는 제사인데 영제(榮祭)라고도 하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기청제와 영제에 대한 기록이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등에 고르게 100여회 이상 나온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니 기청제를 드리자고 왕께 청하거나, 기청제를 드리라고 왕이 명하는 것”과 “기청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많고, 더러는 “기청제를 드리지 말자”고 건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마도 기청제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음을 아는 신하의 건의로 보이지만 기청제 역시 기우제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여 음력 정월에 지냈던 제사인 기곡제(祈穀祭) (또는 기곡대제(祈穀大祭), 기년제(祈年祭), 기풍제(祈豐祭)라고도 함)가 있었고, 또 눈이 오기를 기원하는 기설제(祈雪祭)도 있었다. 지금도 기설제는 스키장에서 지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지금도 날짜를 받아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비가 오게 해달라고 아니면 비가 그치게 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며, 행사를 마친 후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과학적인 면에서 기우제나 기청제는 의미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행사를 하여 공통적인 관심사에 마음을 합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시대에는 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령, 비가 계속 올 때에 팬티만 입거나 거적을 쓰거나 또는 나체로 원시인들이 비 맞고 살아온 것처럼 비가 올 때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축제를 열어 현대판 기청제를 열어보는 보는 것도 멋이 있을 것 같고, 오랜 가뭄 속에서 열대지방이나 사막의 삶을 체험하며 현대판 기우제를 발전시킨다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소중히 알고 그것들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데 기우제와 기청제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하여 역사를 기리고 조상들의 지혜를 되살리는데 기여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역사에서 왕이나 관리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기우제나 기청제를 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 지도자들이나 각계의 책임자들도 국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면 홍수피해가 나서 사람이 죽고, 뜨거운 가뭄 속에서 속이 타 들어 갈 때 골프치고 구설수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은 없게 될 것이다.